

#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연관성

최은정 · 송윤신

경복대학교 치위생과

## The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and self-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Eun-Jung Choi · Yun-Sin Song

*Dept. of Dental Hygiene, Kyungbok University*

---

###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health education program,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and self-efficacy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 This research was based on self administrated survey conducted by 348 dental hygiene students. The survey was composed of five items of general characteristics, ten items of factor in self-efficacy and seven items of factor in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Results :**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tudents with high grades had higher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p<0.05$ ) and students answered that the significance of oral health is very important had higher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p<0.05$ ). The level of self-efficacy was separated by high-level(30%), medium-level(40%), and low-level (30%), and the higher self-efficacy was, the higher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was.

**Conclusions :** By improving dental hygiene student's self-efficacy, it was necessary to promote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J Korean Soc Dent Hygiene 2012;12(3):485-493)

**Keywords :**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self-efficacy

**색인 :**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 자기효능감

---

## 1. 서론

산업화, 도시화, 과학화 및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오늘 날 우리의 관심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이라는 것으로 집중되고 있다. 인간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요소는 건강(health)이다.

19세기 중엽 이전에는 건강을 아픈 상태의 반대개념으로 보았고, 19세기 중엽 이후 건강은 정신적인 측면을 포함한 심신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194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의 개념을 생활개념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건강의 개념은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생활개념으로,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로써 구강건강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강건강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sup>1)</sup>. 이러한 구강건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구강보건행동이 중요하며, 구강보건행동은 대상자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동과 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sup>2)</sup> 이는 우리가 건강증진을 함께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구강건강을 위한 건강증진 행위는 자아인식의 향상, 자기만족, 기쁨, 그리고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격려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 이 행위는 환경에 의한 위협이나 외부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고도의 건강을 향해 움직이도록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sup>. 즉,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올바른 건강증진 행위를 위해서는 개인의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강한 자기효능감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시키고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어 개인의 성취와 안녕을 향상시켜 준다<sup>4)</sup>. 즉,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증진을 위한 어떠한 행동에 대하여 안다고 해서 건강행위가 즉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실천의지로부터 출발해서 행동으로 나타난다.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으려면 그러한 행동을 할 만한 계산된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어떠한 행동도 의지하는 바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지는 행동의 좋은 예측변수이며 행동을 실제로 관찰하지 않고 다른 지표를 사용하여 예측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지표로서 사람들은 일정한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sup>5)</sup>. 이에 구강보건행동에 대한 실천의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구강보건행동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구강건강신념이 구강보건활동에 미치는 영향<sup>6)</sup>,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등<sup>7,8)</sup> 신념과 지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논문들이 다수 있었으며, 행동을 함에 있어 결정요인인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이 관계에 있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국민구강보건에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인력인 치위생과 학생의 구강보건행동에 대한 실천의지와 자기효능감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편의 표본 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으로 선정한 경기 북부지역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1, 2학년을 대상으로 총 354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내용 기재가 미비한 6부를 제외하고 348부를 채택하여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2.2. 연구방법

설문조사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하게 하여 회수하였으며, 설문에 사용된 자기효능감과 구강보건행동에 관한 설문문항은 기존 문헌 및 신뢰성 있는 자료<sup>9~13)</sup>를 바탕으로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교육 전문가 4명에게 자문하여 구성하였고, 예비조사로 학생 10명에게 사전조

사를 실시한 후, 학생들이 응답하기 어려운 설문항목을 파악하여 수정한 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설문은 일반적인 특성 5문항, 자기효능감에 대한 요인 10문항,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에 대한 요인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 및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 항목의 전체 신뢰도는 .878이고, 자기효능감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96,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22였다.

###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Version 12)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균과 빈도를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총합을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 중요도 인식도는 교차분석을 통해 응답 분포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으로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 3. 연구성적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서울 거주자는 35.1%였고, 경기도 거주자는 60.6%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51.1%였고, 2학년은 48.9%로 조사되었다. 학교성적은 3.5 이상~4.0 미만이 37.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본인의 인지된 구강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44.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구강건강의 중요성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83.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 3.2. 자기효능감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자기효능감의 전체평균은 3.36점이었으며, '어려운 일도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가 3.6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생각지 않은 일이 있어도 나는 적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뜻밖의 결과를 접해도 나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의 항목이 각 3.46점으로 나타났고, '나는 마음먹은 일을 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항목이 3.44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mber	%
Residence	Seoul	122	35.1
	Gyeonggi-do	211	60.6
	Other regions	15	4.3
Grade	1'st	178	51.1
	2'nd	170	48.9
Credit	4.0 or over	63	18.1
	3.5 or over~less than 4.0	130	37.4
	3.0 or over~less than 3.5	95	27.3
	less than 3.0	60	17.2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Very healthy	11	3.2
	Some healthy	155	44.5
	Usual	122	35.1
	Not healthy	56	16.1
	Not very healthy	4	1.1
Importance of oral health	Very important	291	83.6
	Little important	54	15.5
	Not important	3	0.9
Total		348	100.0

Table 2. Self-efficacy

(n=348)

Self-efficacy	M±SD
I can always manage to solve difficult problems if I try hard.	3.09± .91
If someone opposes me, I can find the means and ways to get I want.	3.60± .82
It is easy for me to stick to my aims and accomplish my goals.	3.44± .91
I am confident that I could deal efficiently with unexpected.	3.46± .80
Thanks to my resourcefulness, I know how to handle unforeseen.	3.46± .85
I can solve most problems if I invest the necessary effort.	3.25± .91
I can remain calm when facing difficulties because I can rely on coping abilities.	3.27± .82
When I am confronted with a problem, I can usually find several solutions.	3.42± .83
If I am in trouble, I can usually think of a solution.	3.41± .84
I can usually handle whatever comes on my way.	3.23± .85
Total	3.36± .85

Table 3.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n=348)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M±SD
I will always brush my teeth after meal for dental health.	4.19± .77
I will always try to brush my teeth before sleeping for dental health.	4.53± .66
I will brush my teeth the right way for dental health.	4.49± .65
I will use oral hygiene accessories for dental health.	4.02± .90
I will try to have my teeth scaled one or more times a year for dental health.	4.01± .97
I will not smoke for dental health.	4.78± .62
I will regularly go to the dentist's for dental health .	3.89± .98
Total	4.27± .79

### 3.3.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전체평균은 4.27점이었으며, ‘나는 치아건강을 위해 흡연을 안 할 것이다’가 4.7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나는 치아건강을 위해 잠자기 전에는 항상 칫솔질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항목이 4.53점, ‘나는 치아건강을 위해 올바른 칫솔질을 잘할 것이다’ 항목이 4.49점 순으로 나타났다.

###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학교성적 ( $p=.045$ ), 구강건강의 중요성( $p=.000$ )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성적 항목에서는 전체 교과목 평균평점 3.5 이상인 학생들이 3.5 미만인 학생들에 비해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았으며, 구강건강의 중요성 항목에서 ‘아주 중요하다’ 30.37점, ‘조금 중요하다’ 27.29점으로 나타나 구강건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한 학생이 조금 중요하다고 한 학생에 비해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 3.5.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 중요도 인식

연구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 중요도는 <Table 5>와 같다. 교차분석을 통하여 구강건강 중요도 인식을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 1학년의 경우 구강건강 중요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75.3%, 2학년은 92.4%로 조사되었다.

Table 4. Difference of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F	p-value*
Grade	1'st	178	29.71±4.07	0.95	.331
	2'nd	170	30.12±3.77		
Credit	4.0 or over	63	30.35±3.88	2.71	.045*
	3.5 or over~less than 4.0	130	30.49±3.63		
	3.0 or over~less than 3.5	95	29.23±4.27		
	Less than 3.0	60	29.28±3.85		
Importance of oral health	Very Important	291	30.37±3.73	15.81	.000*
	Little Important	54	27.29±3.93		
	Not Important	3	32.33±4.62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Very healthy	11	29.55±5.52	2.37	.052
	Some healthy	155	30.39±3.82		
	Usual	122	29.94±3.75		
	Not healthy	56	28.82±4.02		
	Not very healthy	4	26.75±4.12		

\*p&lt;0.05

Table 5. Recognition of oral health importance by grade (n=348)

	Oral health importance			Total	
	Very Important	Little Important	Not Important		
Grade	1'st	134(75.3%)	41(23.0%)	3(1.7%)	178(100%)
	2'nd	157(92.4%)	13(7.6%)	0(0.0%)	170(100%)
	Total	291(83.6%)	54(15.5%)	3(0.9%)	348(100%)

 $\chi^2=19.16(df=2, p=.000)$ 

### 3.6.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차이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차이는 〈Table 6〉과 같다.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효능감 총합의 점수를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의 3수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식사 후 칫솔질을 하는 항목에서 자기효능감 상(30%)에 해당되는 학생이 4.45점, 중(40%)에 해당되는 학생이 4.20점, 하(30%)에 해당되는 학생이 3.97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식사 후 칫솔질을 하는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났고, 잠자기 전 칫솔질을 하는 항목에서는 자기효능감 상(30%)에 해당되는 학생이 4.67점, 중(40%)에 해당되는 학생이 4.60점, 하(30%)에 해당되는 학생이 4.36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잠자기 전 칫솔질을 하는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올바른 방법의 칫솔질을 하는 항목에서는 자기효능감 상(30%)에 해당되는 학생이 4.73점, 중(40%)에 해당되는 학생이 4.44점, 하(30%)에 해당되는 학생이 4.33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올바른 방법의 칫솔질을 하는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났고,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을 하는 항목에서는 자기효능감 상(30%)에 해당되는 학생이 4.32점, 중(40%)에 해당되는 학생이 4.07점, 하(30%)에 해당되는 학생이 3.72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구강위생 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하는 항목에서는 자기효능감 상(30%)에 해당되는 학생이 4.28점, 중(40%)에 해당되는 학생이 4.05점, 하(30%)에 해당되는 학생이 3.74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하는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났고,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하는 항목에서는 자기효능감 상(30%)에 해당되는 학생이 4.25점, 중(40%)에 해당되는 학생이 3.85점, 하(30%)에 해당되는 학생이

Table 6. Difference of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by self-efficacy level (n=348)

	self-efficacy level	N	M±SD	F	p-value*
Brushing teeth after meal	High(30%)	103	4.45±0.64	11.40	.000*
	Medium(40%)	122	4.20±0.84		
	Low(30%)	123	3.97±0.75		
Brushing teeth before sleeping	High(30%)	103	4.67±0.55	7.34	.001*
	Medium(40%)	122	4.60±0.61		
	Low(30%)	123	4.36±0.76		
Brushing teeth the right way	High(30%)	103	4.73±0.49	11.43	.000*
	Medium(40%)	122	4.44±0.68		
	Low(30%)	123	4.33±0.69		
Using oral hygiene accessories	High(30%)	103	4.32±0.80	13.28	.000*
	Medium(40%)	122	4.07±0.86		
	Low(30%)	123	3.72±0.95		
Regular scaling	High(30%)	103	4.28±0.88	9.44	.000*
	Medium(40%)	122	4.05±0.96		
	Low(30%)	123	3.74±0.97		
Smoking	High(30%)	103	4.87±0.46	1.97	.141
	Medium(40%)	122	4.75±0.66		
	Low(30%)	123	4.72±0.68		
Regular dentist's visit	High(30%)	103	4.25±0.89	11.97	.000*
	Medium(40%)	122	3.85±1.02		
	Low(30%)	123	3.63±0.93		

\*p&lt;0.05

3.63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하는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었다.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특성상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일반인들보다 많이 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올바른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3.36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과 윤<sup>14)</sup>의 3.32점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났다.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전체 평균은 4.27점이며, 영역별 요인으로는 흡연이 4.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잠자기 전 칫솔질 4.53점, 올바른 방법의 칫솔질 4.49점, 식사 후 칫솔질 4.19점,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용 4.02점, 정기적인 스켈링 4.01점, 정기적인 치과 방문 3.89점 순으로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 점수가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을 치과계열로 조사한 이<sup>12)</sup>의 연구에서도 올바른 칫솔질 3.9점, 흡연 및 음주 3.7점, 식후 철저한 칫솔질 3.5점, 치실 사용 2.4점, 주기적인 스켈링 2.2점 등으로 조사되어 수치는 낮지만 구강건강 행위의 순위는 비슷한 결과로 조사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대

#### 4.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연구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국민구강보건에 일익을 담당할 인력인 치위생과 학생들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인지된 구강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44.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83.6%로 나타났다. 이는 이<sup>12)</sup>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일반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장<sup>13)</sup>의 연구에서는 ‘구강건강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2%, ‘보통이다’ 54%, ‘건강하지 못하다’ 33%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상이 여학생이어서 흡연에 대한 구강보건 실천의지가 가장 컸던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차이는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p<0.05$ ), 구강건강의 중요성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구강보건행동실천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p<0.05$ ). 이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서 구강보건행동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있어서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할수록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와 신<sup>15)</sup>의 연구에서도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구강보건 실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 내용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에 학교 수업에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 중요도 인식에서 1학년은 ‘아주 중요하다’ 75.3%, 2학년은 92.4%로 나타났다( $p<0.05$ ).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중요도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Lang 등<sup>16)</sup>의 덴마크 치과 대학생 신입생과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청결 상태와 치은건강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신입생보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구강건강이 좋다고 보고한 내용과도 유사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관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치위생과에 입문하여 학교에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고학년에서 좀 더 배운 결과로 사료된다.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상(30%), 중(40%), 하(30%)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를 조사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증진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로 식사 후 칫솔질, 잠자기 전 칫솔질, 올바른 방법의 칫솔질,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용, 정기적인 스켈링, 정기적인 치과 방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5$ ). 권<sup>17)</sup>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한

내용과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고, 장 등<sup>11)</sup>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행동적 요인, 인지한 구강건강통제위가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조사된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자기효능감과 구강보건행동의 실천의지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졸업 후 전문 구강보건 인력으로 활동할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 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자로 한 정하여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학년간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의 차이로 인한 편차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학년 간의 편차 고려와 대상지역의 확대 및 연구방법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1개 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치위생과 1,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인의 인지된 구강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44.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구강건강의 중요성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83.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의 전체평균은 3.36점이었으며 ‘어려운 일도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가 3.60점으로 가장 높았고, ‘생각지 않은 일이 있어도 나는 적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뜻밖의 결과를 접해도 나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의 항목이 각 3.46점으로 나타났고, ‘나는 마음먹은 일을 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항목이 3.44점 순으로 나타났다.
3.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전체 평균은 4.27점이었으며, ‘나는 치아 건강을 위해 흡연을 안 할 것이다’가

4. 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는 치아 건강을 위해 잠자기 전에는 항상 칫솔질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항목이 4.53점, ‘나는 치아 건강을 위해 올바른 칫솔질을 잘할 것이다’ 항목이 4.49점 순으로 나타났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총합을 분석한 결과 학교성적( $p=.045$ ), 구강건강의 중요성 ( $p=.000$ )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학년, 인지된 구강건강상태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교성적 항목에서는 평균점 3.5 이상인 학생들이 3.5 미만인 학생들에 비해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았으며, 구강건강의 중요성 항목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평균 30.37점, 조금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의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평균이 27.29점으로 나타나 구강건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한 학생이 조금 중요하다고 한 학생에 비해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6.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 중요도 인식을 알아본 결과, 구강건강 중요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학년 75.3%였고, 2학년은 92.4%로 조사되었다( $p=0.000$ ).
7.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상(30%), 중(40%), 하(30%)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조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증진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Yoon HS, Kim YS.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J Dent Hyg Sci* 2006;12(3):69–77.
2. Kong MS, Lee HS, Kim SN. Children's dental health behavior in relation to their mothers' dental health knowledge level, attitude toward dentist and dental health behaviors. *J Korean acad dent health* 1994;18(1):84–94.
3. Pender NJ. Expressing health through lifestyle pattern. *Nurs Sci Q* 1996;3(3):115–122.
4. Bandura A, Adams NS. Analysis of self-efficacy theory of behavior chang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77;1(4):287–310.
5.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991;50:179–211.
6. Park GJ, Park CH, Kim MO. Belief, knowledge, and practice about oral health care of middle-aged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 2009; 15(2):130–139.
7. Jang KA, Hwang IC.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Its education recognizance of childcare teacher. *The Korea Contents Society* 2009;19(2):735–741.
8. Cho YS, Hwang YJ, Bae HS, Kim SY. Effect of oral health education practice and self-efficacy of teacher on oral health attitude. *J Dent Hyg Sci* 2009;9(1):99–108.
9. Choi AS. Relationships among advanced learning, academic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2005;26(2):221–240.
10. Lim MH, Ku IY, Choi H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to stressors and stress adapta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1;11(5):811–822.
11. Jang YJ, Jung JA, Jeon ES. Relation factors of oral health behavior of junior college in Jeollanamdo.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2006;6(4):387–402.
12. Lee HY. Study on relation factors of oral health behaviors based on health promotion model [Master's Thesis]. Seoul: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2000.

13. Jang JY. The correlation study on oral health behavior toward oral health belief. The J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2007;9(1): 133–148.
14. Yoon JA, Yoon YS. Comparing with self-efficacy and knowledge, attitudes about radiation safety management of dental hygienists and students at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1;11(5):729–739.
15. Lee MY, Shin KH. Dental hygiene behaviors depending on the dental hygiene perception of selecte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Kyunggi province. The J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2007;9(1):101–111.
16. Lang NP, Cumming BR, Loe HA. Oral hygiene and gingival health in Danish dental students and faculty.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1977;5(5):237–242.
17. Kwon SJ.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health behaviours of adolescents and social factors. J Korean Soc School health 1996;9(1): 69–75.